

산업동물 임상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提言)

양 일 석 교수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동물 임상교육원의 필요성

농림수산식품부에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산업동물을 정의하라면 소, 돼지, 닭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산업동물 보다는 대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소, 말을 들 수 있겠지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수의학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임상교수는 소를 비롯한 대동물 임상을 교육하고 돼지(양돈), 닭(조류) 질병에 관한 전임교수가 따로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식육(food animal)의 개념에서 넓은 의미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농림부통계(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생산액 순위 10위 이내의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2), 한육우(3), 우유(4), 계란(5), 닭(7)으로

축산생산액이 농업생산액보다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업과 임업에 비하여 축산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료 값 폭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체결,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진행되면서 축산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액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2006)에서 가축폐사로 인해 연간 육우는 403~1695억 원, 젖소는 427~1081억 원, 돼지는 6953~11840억 원, 닭은 약 685억 원의 농가 수입손실이 발생되며, 아울러 질병치료 비로 연간 2256~2852억 원의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해(2008) 발생한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외식업체, 소

매업체를 포함한 간접피해 모두를 고려하면 6488억 원에 이른다 하였다. 이러한 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농가손실을 줄이고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축산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산업동물 임상교육에서 그 돌파구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를 크게 살펴보면 임상, 공무원과 업계(사료, 동물약품, 식품 등) 및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임상만 하더라도 애완(반려)동물과 산업동물로 구분되고 산업동물은 다시 소 분야, 돼지 분야, 닭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하므로 수의학의 수업연한이 6년이라 하여도 대학마다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 대학에 소를 전공하겠다는 졸업생은 한 해 2명 안팎이다. 돼지, 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적은 숫자를 대학마다 전공별로 교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하면 되지 않는가?

대학원은 임상가가 아닌 연구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의과대학의 기본과정을 수료한 후 한 곳(대학)에 모여 분야(축종)별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수의사를 위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600만원(항공료 포함, 2년전 금액. 현재는 환율사정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의 경

비를 부담하고라도 2주 동안의 양돈학교(네덜란드 소재)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니 이들의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직장의 선배수의사로부터 배우거나 한국우병학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양계수의사회에 가입하여 견문을 넓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수생동물질병 강의를 담당하는 3명(박세창, 정태성, 허강준교수)의 전임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대한수의사회와 서울대학교 BK21 수의과학연구인력사업단의 후원으로 “어패류(수생동물) 전문수의사 양성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총 36시간(실습 12시간 포함)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집중교육(실습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실시되고 있는 바 2007년, 2008년에 이어 제 3회 째 실시(신기욱교수 합류)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교육은 수생동물 질병을 접하고 자하는 수의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 과정은 수의사면허소지자로 한정하기에 재학생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출신대학과 관계없이 한 장소에 모여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1.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후보지

대동물(소) 임상 실습을 위하여 일부 수의과대학이 특별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 희망을 갖고 추진 중인 수의과대학도 있다. 필자가 추천

하는 곳보다 더욱 적합한 후보지가 대두되면 당연히 그 곳이 되어야 하겠지만 필자는 산업동물 임상교육원으로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익산캠퍼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최근 축산단지가 경기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남하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이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음과 더불어 하림, 동우를 비롯한 양계단지, 숲골(임실치즈)과 전북에 산재(장수, 정읍, 화산 등)한 한우단지, 익산의 왕궁축산단지를 비롯한 양돈장 등 전라북도는 농도(農道)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김완주 전북지사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현재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개칭)이 통합되면서 수의과대학이 익산캠퍼스로 이전(2011년 3월)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캠퍼스이전에 대한 특별지원(교수증원, 예산지원, 익산캠퍼스 월성농장 활용 등)을 잘 챙기고, 전북대학교 본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부가 힘을 모으면 세계적 경제 위기와 FTA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축산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물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동물 전문수 의사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2.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운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내년(2010년)부터 3학년을 수료하면 정규(필수강의)과정이

끝나고 4학년 1학기는 임상순회 진료교육이 실시된다. 다른 대학도 4학년 1학기를 수료하면 모든 정규과정이 수료된다. 따라서 4학년 6, 7, 8월의 3개월 합숙을 하면서 소 과정, 돼지 과정, 닭 과정의 하나를 수료하면 학점도 부여(10개 대학교 간의 MOU 협정)하는 전문수 의사 과정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각 분야별(소, 돼지, 닭) 담당교수 3명씩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의 해당 담당 교수가 하루 혹은 이틀씩 출강(외래교수 혹은 겸임교수 발령)하여 교육할 뿐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 혹은 현재 임상 활동 중인 수의사를 포함한 축산분야 근무 수의사를 초빙함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넓히게 한다.

또한 수의과대학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축종별 영양(대사성질병 포함)은 물론 축산경제와 축산환경문제(분뇨폐수)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교육원이 설립되면 전국의 축종별(닭, 돼지, 소) 농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행하여지는 토론교육은 후속세대 전문수 의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료회사와 동물약품 회사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장 사정을 쉽게 익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면 수년간의 경험과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상 경력자를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가축질병을 진단해주고 컨설팅을 해줄 수의사를 요구하는 현장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미래의 대세는 융합학문이다.

생명공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금융공학, 디자인경영학 등 새로운 융합학문이 뜨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주사기만 들고 진료하는 수의사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이른바 “필드 수의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해 준다.

3. 산업동물임상교육원에서의 교육대상과 선발기준

■ 산업동물임상교육원에서의 교육대상은

- ①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 수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
- ② 공익수의사의 현장 배치 전 교육대상자로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기숙사비를 제외한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한 정규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유희기간에는
- ③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산업동물 임상교육 수련을 희망하는 사람
- ④ 산업동물 개업수의사(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실시하는 재교육)
- ⑤ 업계(사료회사, 동물약품) 생산현장(양계장, 양돈장, 목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하도록 한다.

산업동물 임상교육원 설립의 가장 긴요한 목적은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이지만 어느 대학도 축종별 전문수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어려우므로 자신이 수학하는 수의과대학에서 4학년 1학기 과정까지 수료한 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특정한 곳에 모여 축종별로 집중적인 심화교육(실습포함)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이 들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산업동물 현장에 진출하려는 지원자는 소설 속의 낭만적 농촌을 생각하거나 다른 분야에 취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띄워보자는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의과대학 학생은 예과 2년을 포함하여 본과 3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10번의 방학이 있으므로, 산업동물 임상교육원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이러한 방학기간에 8주 이상의 산업동물 현장에서 실습을 수료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효과

- ① 10개 수의과대학이 각자의 실습장(實習場)을 갖는 것에 비하여 국가예산을 한 곳에 집중투자 함에 따라 기대효과가 대단히 크다.
- ② 졸업생의 일부가 희망하는 산업동물 수의사 지원생을 한 곳에 모아 축종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이 충실하여 축종별 전문수의사 양성이 가능하다.
- ③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은 전국에 하나뿐이고 모든 수강자는 축종별 전문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므로 업계(사료회사와 동물약품회사), 생산현장(양계장, 양돈장,


목장 등), 전문학회(한국양계수의사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우병학회)와의 연결모색으로 공동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④ 농가 수는 줄어들고 농가당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우리나라 축산은 축종별 전문수의사 양성으로 축산농가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4. 글을 마치면서

필자는 임상교수가 아니고 생리학 담당교수이다. 그리하여 임상교수들에게 결례되는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학장(2005. 3~2007. 2) 재임 동안 산업동물 임상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애착을 가졌기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10개 대학이 함께하는 집중교육이 모색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우리 교수들은 수의과대학 입학생의 합격점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 보다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보수로 이루어지는가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본 원고는 필자의 제언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